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왕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라와 고구려·백제와 가락 역사의 보물창고

1. 역사와 연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한 시대를 기록하는 일이다. 한 시대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신의 유전인자, 즉 자신의 혼과 얼을 만나는 일이다. 역사는 다양한 사건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들을 일정한 사관에 의해 하나의 하모니로 이끄는 지휘자와 같다. 각 ‘점’(點)들이 빚어내는 사건들과 그 점들이 연속되어 이어가는 ‘선’(線)들의 흐름, 그 흐름들이 종종무진으로 엮어내는 ‘망’(網)들과 그것이 빚어내는 다면적 의미망들의 덩어리인 ‘입체’(立體)로 사서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서가 탄생하기까지는 기록과 유물과 유적 및 기억 등의 사료 채집과 사관 정립 및 시대구분과 연표작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통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역사서에 대한 교육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지를 통해서 현재의 자기를 성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일연(一然, 1206-1289)은 출가한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화와 역사전통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지녀왔다. 그는 선종의 여러 전적들을 접하면서 조사들의 계보와 가풍 및 그들의 살림살이와 사교방식에 대해 남다르게 주목을 해 왔다. 수행의 기쁨[禪悅]을 느끼는 틈틈이 대장경을 두 번이나 열람하였고, 여러 불학자(家)들의 장소(章疏)를 깊이 연구하였다. 또 유가의 서적들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의 글도 겸하여 읽었다. 국사에 추대되면서 충효(忠孝) 개념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해법 및 불교적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보도 주요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삼국유사』 편찬을 기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략하나마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을 참고하고 제자들의 도움을 얻어 만든 『역대연표』로 역사 기술의 근거로 삼았다.

연표(年表)는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도시화한 표이다. 『삼국유사』 제1권에 편재된 『왕력』은 역대 왕의 출생과 즉위 및 치세를 중국 연대와 비교 서술하여 기록한 연표이다. 일연은 제일 왼쪽에 중국 연표를 두고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의 순서로 적었다. 이는 신라 중심이 아니라 역사 기록상 가장 먼저 재위한 신라의 제1대 박혁거세(B.C.E. 57)를 앞세운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건국한 고구려의 제1대 동명왕(B.C.E. 37)과 백제의 제1대 온조왕(B.C.E. 18), 그리고 가락의 제1대 수로왕(C.E. 42)의 출생과 즉위 및 세계(世系)와 치세(治世) 등을 적고 있다. 중국 연표는 국가명과 황제명 및 연호와 연호 유지 기간 등을 적었다. 이에 상응하여 신라의 시조 혁거세(赫居世) 마립간의 재위기간에 해당하는 전한 선제(宣帝)로부터 기록하여 신라 경순왕과 고려 태조 및 후백제 견훤시대에 대응하는 당말 5대 10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황제명과 연호를 적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 이후에 유목을 나타낸 것은 「기이1」, 「기이2」, 「흥법」,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7편이다. 이 때문에 「기이」 다음에 제2가 될 무엇과, 「흥법」 다음에 제4가 될 무언이 빠져 있다고 본 학자가 있다.

일본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에 지나지 않아 유목을 세우고 이미 숫자로서 차례를 매기면서 같은



도쿄대학에서 간행한 20세기 최초 신철자(삼국유사). ‘왕력’ 부분은 가독력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휴대 받지만, 이를 읽어와 전체적인 삼국유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름을 거듭 썼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것이 또 다른 유목이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 중종(中宗) 연간에 간행된 정덕본(正德本)에 근거해 보면 ‘동경흥륜사 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과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 두 조항 사이에 필요 없이 끼여든 것으로 보이는 「탐상」제4란 편목의 ‘제4’란 두 글자가 탈락된 나머지 글일 것이라고 논한 것이다. 또 「기이」와 「흥법」 사이에는 권도 바뀌고 수도 하나 건너 띄므로 그렇게 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왕력」을 제1권으로 볼 때 제2권 「기이1」과 「기이2」의 권차 배정 문제와 두 조항 사이에 끼여든 「탐상」제4의 권차 배정과 조목 배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기이」와 「흥법」 사이에는 같은 기사 계속되고 있어 억지로 나눠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기이」제1 앞에 책이름을 나타낸 것이 없어 이것이 책 첫머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책 이름이 「왕력」 위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왕력」제1이라고 차례를 매긴 것이 분명하므로 「왕력」이 유목 중의 하나이자 제1권의 첫머리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역사의 보물창고

『왕력』편은 제일 첫 부분에 편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야기 중심으로 된 편이 아니라 『삼국유사』독자들은 「왕력」편을 건너뛰고 「기이」부터 「효선」까지 읽게 된다. 「효선」을 다 읽고 나서조차도 다시 「왕력」편은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삼국유사』를 완독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일부 번역본에는 서두의 「왕력」편이 가독력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아예 「효선」 뒤에 편집해 넣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왕력」편을 읽는 사람은 일부 전공학자들 뿐이다. 과연 「왕력」은 읽을 필요가 없는 편일까? 아니면 읽어보아도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편일까? 그런데 「왕

‘왕력’ 읽어야 왕실 세계 이해 중국 대등하게 왕명 병기·기술 연표는 역사를 읽는 지남 댕 연표 읽은 이후 기이 등 읽어야

력」편을 읽지 않고 『삼국유사』 「기이」에서 「효선」까지만 읽으면 사국의 세계와 치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 반드시 「왕력」을 읽어와야 왕실의 세계나 치세가 잘 잡히게 된다.

『왕력』은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 역사의 보물창고이다. 보물 창고에는 보배들이 가득 차 있다. 『왕력』편에는 일연이 삼국 중 신라의 시대구분을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는 제1대 혁거세마립간에서 제22대 지증마립간까지를 상고기로 보았다. 제23대 법흥왕에서 제28대 진덕여왕까지를 중고기로 보고 성골의 왕이 재위한 시기로 보았다. 제29대 태조무열왕에서 제56대 경순왕까지를 하고기로 보고 진골의 왕이 재위한 시기로 보았다. 이것은 제1대 혁거세마립간(赫居世麻立干)부터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대까지를 ‘고대’ (기원전 48~기원후 653), 제29대 태조무열왕(太宗武烈王)부터 제36대 혜공왕(惠恭王)까지를 ‘중대’ (654~779), 제37대 신덕왕(宣德王)부터 제56대 경순왕(敬順王)대까지를 ‘하대’ (780~935)로 시대구분 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대비된다. 일연은 왕의 호칭과 출자를 중심으로 마립간 시기, 성골 왕의 시기, 진골왕의 시기로 삼분한 반면, 김부식은 왕의 정계와 방계를 구분하여 박석기 삼성시기-무열왕계 시기-방계씨씨기로 삼분하였다.

『왕력』편에는 신라의 국명이 ‘서라벌’ (徐羅伐) 또

는 ‘서벌’ (徐伐) 혹은 ‘사로’ (斯盧)- ‘계림’ (鷄林)- ‘신라’ (德業日新 網羅 四方)로 변화하였음을 알려준다. 또 왕의 호칭이 차차웅-거서간-이질(사)금-마립간의 변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또 법흥왕 때부터 시호(諡號)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왕의 내외가 출가하여 승려(僧侶)가 되었고, 십재일(十齋日)에 살생을 금하고, 도첩(度牒)을 주어 승려가 되게 하였음을 알려준다. 진흥왕 (내외)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가락(駕洛) 흡수 이후부터는 신라 고구려 백제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백제와 고구려 흡수 이후부터는 통일신라의 연표만 기록하고 있다.

또 후삼국의 시대를 열었던 후고구려 즉 마진(摩震, 904-918)의 궁예, 후백제(後百濟, 892-935)의 견훤, 고려(高麗, 918-1392)의 왕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목을 시술한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철원경(鐵原京)에서 즉위(918)한 뒤 기묘년(919)에 송약군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창건한 법왕사, 자운사, 왕문사, 내제석사, 사나사, 대선원(보제원), 신흥사, 문수사, 원통사, 지장사 등 10개의 절 이름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중국 한(漢)나라의 황제명 및 6조(朝)의 국명과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의 황제명과 5대 10국 시절의 나라들인 주량(朱梁), 후당(後唐), 석진(石晉), 유(劉), 한(漢), 괘주(郭周) 나아가 송(宋)나라의 국호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연표는 저 신라로부터 고구려, 백제, 가락, 후고구려, 후백제를 아우른 고려가 탄생하기까지 중국 각 나라의 이름과 황제명에 준하여 사국(四國) 및 후삼국의 왕명을 병기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역사연표를 기술하고 있다.

3. 왕력, 반드시 읽어야 될 편명

연표는 역사를 읽는 지남이 된다. 연표는 역대 나라와 통치자 및 즉위와 치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이정표이다. 때문에 역사고전을 볼 때 연표는 필수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서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된다. 해당 시대나 통치자의 연호에 상응하는 시대 비정을 하지 않고는 역사의 길목에서 방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국(四國)시대의 ‘역대 왕의 연표’라고 할 수 있는 「왕력」편은 『삼국유사』를 읽는 이정표이며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자들은 「왕력」편을 건너뛰고 「기이」편부터 읽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서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왕력』은 왕의 이력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치자인 왕의 성과 태생, 부모의 이름, 형제 관계, 즉위년과 재위 기간, 왕비의 이름, 나라 이름 명명, 도읍지, 수도 이전, 영토 확장, 장례법과 장례지 등 통치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담겨 있는 정보로 치면 간략한 인명사전을 보는 듯하다. 짧은 칸(란) 속에 담은 속성상 해당 인물의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해서 역사서 본문을 읽는 때에는 반드시 함께 읽어와야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왕력」 편만을 따로 읽고 나서 본문과 연계시켜 읽어와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역사에 상응하여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연보의 필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역사서류인 「고기」(古記) 중에서도 최치원의 『제왕연대력』과 「신라수이전」, 김대문의 「고승전」과 『화랑세기』, 대구(大邱)화상의 『삼대목』, 최승우의 『호본집』(?本集)과 홍관의 『편년통제속편』(編年通載續編)과 같은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연보학, 계보학, 향가집, 전기류 등의 편찬과 구성 등을 깊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선행 연표와 역사서 및 향가집과 전기류 등은 『삼국유사』 찬술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출현 인물들을 깊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의 9개 편명 중 「왕력」편은 제일 처음에 자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이 가지 않는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편명이 지니고 있는 ‘연표’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표를 읽고 난 뒤에 본문을 본다면 본문의 지형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어 보게 되면 이 편명은 매우 달리 보일 것이다. 연표에는 사적인 기능과 지도적 기능 등이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 얼마든지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삼국유사』의 독자들이 「왕력」편을 반드시 먼저 읽고 「기이」편을 읽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왕력」편은 반드시 읽어야 할 편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 2007, 1976).
권상로 역해,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석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功德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功德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입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뚝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p>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0mm) 모주 1개(12mm) 출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p>	<p>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p>	<p>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7 마강염주 염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염주 통과시키면 됩니다.</p>	<p>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p>	<p>10 다시 매듭을 3번 함꼐 조이면 됩니다.</p>
<p>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함꼐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터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통과시킵니다.</p>	<p>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저처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p>	<p>12 108염주 완성 성공신탄트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p>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